

현대차, 광주글로벌모터스에 기술이전한다

공장 설계 마무리 단계…실무주도 본부장급 곧 채용
12월 착공…내년 생산직 등 직원 공채·2021년 양산

광주형일자리 적용 사업장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와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공장 건설 및 차량 대량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 빗그린산단 부지 매입 절차를 거쳐 완성차 공장을 짓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4일 현대자동차 서울 본사에서 현대자동차와 완성차 위탁생산 및 공급을 위한 업무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지원 협약 체결은 광주 광산구 빗그린산단에 완성차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대량생산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은 ▲공장건설을 위한 설계도면 제공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라인 배치 및 설비, 전산시스템 등 업무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 ▲경차급 SUV차량 양산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두 기업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광주글로벌모터스 관계자는 “광주글로벌모터스와 현대자동차간 업무지원 계약체결로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힘

을 모아야 하는 때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며 “광주형 일자리를 노사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지역 일자리를 선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측은 현재 공장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며, 실무를 주도할 본부장급 간부 채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사업 속도에 대해 전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광산구 삼거동 빗그린산단 내 공장 부지(18만3000평, 1391억원)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공장부지 매입 후 공장 설계 작업 착수와 함께 공장 인허가를 취득하는 데 주력하고 11~12월께 착공식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2020년 9월 공장 설비(생산라인) 설치, 2021년 2월 시운전, 2021년 4월 시험생산, 2021년 9월 양산 체제 돌입 일정을 갖고 있다. 빗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하는 계획이다.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 현대차, 광주은행, 산업은행, 지역건설사 및 자동차부품 업체 등 36개 기관·기업 등이 2300억원을 출자해 만든 주식회사로, 회사는 공장부지 매입과 건립, 생산라인 구축 등 사업을 위해 필요시 최대 3454억원을 차입 조달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평’ 소리 후 추락 영상 봤다”
실종자 가족 주장…해경은 부인

독도 해역에 추락한 소방헬기 실종자 가족들이 4일 “헬기가 ‘평’하는 소리가 난 뒤 추락하는 영상을 봤다”고 주장했다.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대구 강서소방서에서 “사고 초기 다 함께 모인 장소에서 동영상을 보여줬다”며 “헬기가 하늘 위로 날다가 갑자기 기울고 곧이어 ‘평’하는 소리와 함께 바다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한 여성은 “분명히 ‘평’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울었다”며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다른 실종자 가족이 화염으로 추정되는 불빛을 봤다고 말했다”고 했다.

해경 관계자도 “저희가 제공한 추락하는 영상은 전혀 없다”며 “KBS에서 찍은 영상도 이륙 전까지가 전부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니클로 광고 패러디 제작
윤동현 씨 ‘의로운 시민상’

광주시는 4일 정례조회에서 전남대 사학과 4학년 윤동현(24) 씨에게 의로운 시민상 상패를 수여했다.

윤씨는 지난달 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90) 할머니와 함께 “제 나이라는 얼마나 힘들었냐”,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라는 문답 영상을 제작했다.

90대 할머니가 10대 소녀로부터 “제 나이라는 어떻게 입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오래전 일은 기억 못 한다”(I can't remember that far back)고 답하는 유니클로 광고 영상을 패러디해 업체측에 일격을 가한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주인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광주대회’ 4일 오후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린 광주 구청장협의회와 ‘주인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광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재정분권, 자치분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최혜남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구청장협의회 “지방재정 제도 개편 절실”

주민참여 ‘자치분권 광주대회’… 광주선언문 발표

광주 동·서·남·북·광산 구청장으로 구성된 광주 구청장협의회가 4일 ‘주인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광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선대학교에서 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는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이 자치분권의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광주 구청장협의회장인 문인 북구청장의 개회사와 황명선 논산시장(전국협의회 상임부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강인호 조선대 교수의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강연이 이어졌다.

주민들이 참여한 ‘내가 꿈꾸는 광주’에 세이 공모전 수상작 낭독 이후에는 광주 5개 구청장이 자치분권의 의견을 나누는 ‘자치분권 토크’가 열렸다.

행사 마지막 순서에서 광주 5개 구청장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광

주선언문을 발표했다.

구청장들은 “광주시 자치구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 최하위, 사회복지예산 최상위, 자체 사업 비중 최하위로 재정 삼중고에 처해있다”며 “지방재정 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지방세법 등 개정 법안의 조속한 통과, 국가 사회복지 정책 등에 따른 국고 보조율 상향 지원, 기초 지방정부 중심의 지방재정 분권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김정은, 북미 정상회담 12월 목표”

국정원, 이르면 이달 중 실무회담… 방중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중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놓고 이르면 이달 중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국가정보원이 4일 밝혔다.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은 이날 국정원을 상대로 연 비공개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이 12월에 잡혔다고 말한 이전 브리핑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중간 브리핑에서 “김정은은 12월(북미) 정상회담을 정해놓은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 브리핑을 토대로 북미가 다음 달 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자 이 위원장이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정정 브리핑’을 자정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북한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12월 개최로) 목표로 잡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북미회담 전에 실무협상을 하려면 12월 초까지 하지 않겠느냐는 합리적 추측이었다”며 “(12월 정상회담 개최) 전망이 아니고, 그게 그 사람들(북측)의 목표일 거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중국을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1·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증했던 전례에 비추어서다. 또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11월 중, 늦어도 12월 초에는 실무회담이 열릴 것으로 국

정원은 예상했다.

국정원은 김평일 주(駐) 체코 북한대사가 교체돼 조만간 귀국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평일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친인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이다. 김 대사의 누나 김경진의 남편인 김광석 주 오스트리아 북한대사로 동반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과 관련해 국정원은 “결국은 이동식 발사”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동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서훈 국정원장의 답변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이은재 의원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정외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한 발언과 배치된다는 해석을 낳았으나, 이해훈 위원장은 이 역시 오진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이 위원장은 “과거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동식 발사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동식 발사대는 이동하는 데만 쓰고, (발사) 장소까지 끌고 가서는 거처대에 올려 쏘는 적은 있다는 게 팩트”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시험 발사한 잠수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 해신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게 되면, (그) 잠수함에서는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화상 ‘한일 모금해 징용피해자에 지급’ 제안

교도통신 “국회 제출여부·실현 가능성 불투명”

일본을 방문 중인 문화상(사진) 국회의장이 4일 한국과 일본의 기업을 대상으로 모금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문 의장은 이날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 회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 의장은 한국과 일본 국적을 묻지 않고 모두를 자금 각출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뜻이 있는 사람과 함께 (모금을) 행하겠다. 강제적으로 모으지는(모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전날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징용 피해자와 한국 내 여론이 납득할만한 지원 법안을 마련했다며 일본 측의 반응을 살펴본 후 국회에 제출할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의장이언급한 법안과관련해교도통신은강제징용소송의원고들이피고인 일본 기업에게배상과사죄를요구하고 있다며 한국내에서 컨센서스(의견일치)를 얻어 실제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지를 포함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징용 갈등 해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과 일본 기업이 배상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출자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를 거절했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재산이 훼손되는 사태가 되면 대항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7년
창사67주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토리얼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인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동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5-5530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52-0175 · 백 은 651-1833 · 봉 선 675-5530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경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천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가능
•법원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계림동 도로점 2층 주택 땅 142㎡ 건평 164㎡ 환경 줄을 2억
- 월산동 무진동 건너편 내대지 234㎡ 원통 등 적합 3억5천
- 서구 마륙동 도로점 378㎡ 투자에도 좋은 5억2천
- 창흥군 안양면 가산리 땅 891㎡ 주택·창고 137㎡ 전방 줄을 2억5천
- 곡성군 옥과면 수리 계획관리지역 전 9504㎡ 투자에 좋은 1억9천
- 금매 무안군 정계면 도림리 목포대학 건너편 680㎡ 전원생활적합 3300만원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땅 1749㎡ 교환 2억 현금 매도는 조정 가능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양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무안 문탄면 영산강점 48900㎡ 펜션 147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8억
- 나주시 다시면 광곡간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을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유조경줄을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 사찰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 7억 4억 5천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곡동 배수를 백암리 1130㎡ 조방 줄을 1억3천

상가건물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이마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옥 적합 15억천
- 운암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5㎡ 매입 2억 창고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신축 원통 광산구 도천동 땅 226㎡ 건물 381㎡ 안집 있고 원통 11개 9억5천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텔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금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6층 32평형 지하철 1분 5억7천
- 월산동 상암지 땅 220㎡ 5층 건물 768㎡ 리모델링 필요 은행 3억 매도 6억
- 요양시설 영랑 법선면 땅 5416㎡ 1층 477㎡ 중추 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몰·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2020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논문제 시험)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국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용·북한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주요일정

구 분 일정
입학원서 접수(인터넷 작성) 2019. 11. 11.(월) ~ 11. 25.(월)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2019. 11. 11.(월) ~ 11. 25.(월) 공과대학 4호관 2층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 형 일 시 2019. 12. 4.(수) 10:00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19. 12. 20.(금) 11: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친환경농업학과 ※ 학과별 전공은 모집요강(안) 참고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